

2020년 12월 0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가치주 중심 매물 출회되며 혼조

미 의회, 정부 섣다운 막기 위해 1주일 단기 예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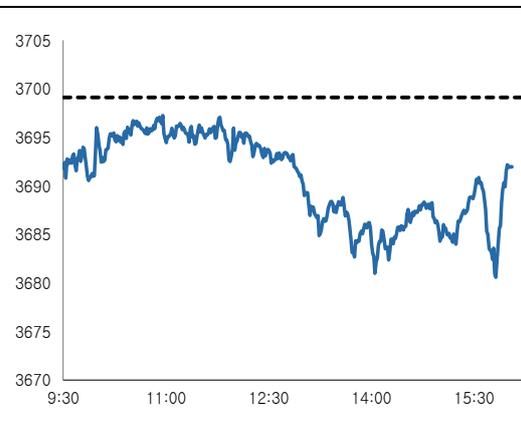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브렉시트, 코로나, 추가 부양책, 정부 섣다운

미 증시는 브렉시트 불확실성과 코로나 관련 불안 심리가 유입되며 최근 상승을 주도했던 가치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출발. 그러나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나스닥이 상승 전환하는 등 낙폭 축소. 오후 들어서는 추가 부양책 관련 논란이 지속되며 재차 매물 출회 됐으나 정부 섣다운 막기 위한 조치가 발표되자 안정 속 혼조 마감(다우 -0.49%, 나스닥 +0.45%, S&P500 -0.19%, 러셀 2000 -0.06%)

미 증시는 코로나, 추가 부양책, 브렉시트, 미-중 마찰 등이 영향을 준 가운데 개별 종목 이슈가 유입된 종목군 중심으로 변화. 장 시작전 EU 와 영국이 브렉시트 미래관계 협상 관련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파운드화가 급락 하는 등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 이런 가운데 백신 효과로 상승하던 가치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주식시장에 부담. 이는 파우치 소장이 백신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여기에 미 국민 중 40%가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 뉴욕, 캘리포니아가 추가적인 봉쇄를 발표한 점도 부담. 더불어 WHO 가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가 끝났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자 코로나 장기화 부담도 가치주 중심의 매물 출회 요인

한편, 미 의회는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추가 부양책과 정부 예산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음. 민주당 지도부는 9 천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인 의원들이 주장한 방안을 지지. 이는 이번 달 추가 실업 급여 조항이 만료가 되며 추가적인 조치가 없으면 1,200 만명이 혜택을 잃게 되고 수백만명이 퇴거 위협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2.2 조달러 규모의 부양책 보다는 9 천억 달러라도 처리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그렇지만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로, 샌더스 상원의원등 진보적인 의원들은 지원 자금이 부족 하다며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 이런 가운데 장 마감 앞두고 커들로 백악관 국가 경제 위원장이 부양책 거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의회가 정부 섣다운을 막기위해 1주일 예산을 수요일 표결 할 것이라는 소식이 긍정적.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745.44	+0.51	홍콩항성	26,506.85	-1.23
KOSDAQ	926.88	+1.44	영국	6,555.39	+0.08
DOW	30,069.79	-0.49	독일	13,271.00	-0.21
NASDAQ	12,519.95	+0.45	프랑스	5,573.38	-0.64
S&P 500	3,691.96	-0.19	스페인	8,275.60	-0.57
상하이종합	3,416.60	-0.81	그리스	786.85	+0.24
일본	26,547.44	-0.76	이탈리아	22,107.18	-0.3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1.23%), 테슬라(+7.13%) Vs. 인텔(-3.43%), 에너지, 레저

애플(+1.23%)은 인텔(-3.43%)의 가장 빠른 칩을 능가하는 새로운 칩을 2021년에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맥북 칩은 ARM 기술을 이용해 TSMC(+2.56%)가 위탁 생산한다고 발표해 TSMC도 강세를 보였으나, 인텔은 급락했다. 코닥(+59.89%)은 증권 거래위원회가 미국 정부의 약품 생산을 위한 대출에서 잘못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급등했다. 화이자(+2.26%)는 인도에서 코로나 백신 긴급 승인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으며 모더나(+4.59%)도 동반 상승했다. 또다른 백신 개발 회사인 아스트로제네카(+0.97%)는 투자의견 상향 조정으로 강세를 보였다.

테슬라(+7.13%)는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며 급등 했다. 더불어 최근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성장주에 대한 매수세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페이스북(+2.10%), 넷플릭스(+3.51%), 세일즈포스(+0.81%)등도 강세를 보였다. 이날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아메리칸 에어라인(+4.94%)이 급등했고 보잉(+2.35%)도 737맥스 판매를 이유로 투자의견 상향 조정에 힘입어 동반 상승했다. L브랜드(+5.20%)도 견고한 실적 발표로 강세를 보였다. 스카이웍(+2.16%)도 가이던스 상향 조정 소식으로 상승했고, 이번주 실적 발표하는 어도비(+1.29%), 브로드컴(+2.24%)도 기대 속 강세를 보였다. 반면, 투자의견 하향 조정된 세브론(-2.70%)과 행동주의 투자자가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주력하라고 경고한 엑손모빌(-1.87%) 등 에너지와 코로나 급증 우려 속 레저 업종이 부진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33%	대형 가치주 ETF(IVE)	-0.58%
에너지섹터 ETF(OIH)	-2.45%	중형 가치주 ETF(IWS)	-0.46%
소매업체 ETF(XRT)	-0.50%	소형 가치주 ETF(IWN)	-0.53%
금융섹터 ETF(XLF)	-0.69%	대형 성장주 ETF(VUG)	+0.39%
기술섹터 ETF(XLK)	+0.29%	중형 성장주 ETF(IWP)	+0.07%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97%	소형 성장주 ETF(IWO)	+0.53%
인터넷업체 ETF(FDN)	+0.53%	배당주 ETF(DVY)	-0.67%
리츠업체 ETF(XLRE)	-0.99%	신흥국 고배당 ETF(DEM)	0.00%
주택건설업체 ETF(XHB)	+0.69%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8%
바이오섹터 ETF(IBB)	+0.01%	미국 국채 ETF(IEF)	+0.31%
헬스케어 ETF(XLV)	-0.61%	하이일드 ETF(JNK)	-0.06%
곡물 ETF(DBA)	-0.07%	물가연동채 ETF(TIP)	+0.26%
반도체 ETF(SMH)	+0.57%	Long/short ETF(BTAL)	+0.08%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95.55	-2.44%	+7.70%	+35.21%
소재	446.55	-0.70%	+0.26%	+4.54%
산업재	748.30	-0.48%	+0.95%	+8.90%
경기소비재	1,272.18	-0.20%	+0.06%	+1.08%
필수소비재	690.63	-0.33%	+0.62%	+3.24%
헬스케어	1,300.77	-0.62%	+1.92%	+1.46%
금융	476.67	-0.70%	+3.07%	+15.12%
IT	2,219.75	+0.26%	+2.38%	+3.84%
커뮤니케이션	222.35	+0.62%	+3.27%	+5.14%
유틸리티	317.11	+0.55%	-0.20%	-2.66%
부동산	228.62	-0.94%	+1.24%	+3.5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지수 보다는 개별 종목에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9% 상승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보합을 보였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084.7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외국인이 6 백억원 규모를 순매도 했으나, 업황 개선 기대가 높은 반도체 관련주 등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집중하자 상승 했다. 특히 아시아 시장 전반이 미-중 마찰 확대 등으로 하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점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하락 종목(551 개)이 상승종목(298 개) 보다 많았던 점을 감안 투자심리는 위축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고,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종목군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주 정부가 경제 봉쇄를 더욱 강화한 점,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과학자들이 요구하면 강력한 코로나 통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투자심리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경기 회복이 확대된다는 전제조건으로 2021년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발표한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유럽과 일본 주식 비중을 낮추고 아시아 시장의 비중 확대를 언급한 점은 장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브렉시트 불확실성, 미국 추가 부양책, 코로나 장기화 등을 이유로 차익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전반적인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지수 보다는 개별 종목의 변화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독일 산업생산 개선

독일 10 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3.2% 증가해 예상(mom +1.8%)를 상회했다. 유로존 섹터 투자자 신뢰지수도 전월(-10.0)이나 예상(-11.9)를 크게 상회한 -2.7로 발표되었다.

11 월 미국 투자자 활동 지수는 전월(5.69) 보다 둔화된 5.41 로 발표되었다. 이 지수는 매월 실제 투자자가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포지션, 거래 활동 및 기타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균화하여 이를 지수로 발표하는 데 S&P500 지수에 후행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파운드화 장중 달러 대비 1% 넘게 약세를 보이는 등 변동성 확대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간의 긴장 고조 또한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중국 11 월 정유 수입이 전년 대비 28.7% 감소한 점도 부담이었다. 이런 가운데 추수 감사절 연휴기간 동안 가솔린 소비가 20 년내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수요 둔화 이슈가 부각된 점도 매물 출회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OPEC+ 회담 효과가 지속되며 낙폭은 제한된 모습이다.

달러화는 추가 부양책 불확실성과 브렉시트 우려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엔화도 강세를 보이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다.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협상 관련 불확실성으로 장중 한 때 달러 대비 1% 넘게 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가 유입되며 장 마감 앞두고 약세폭이 축소되었다. 유로화는 브렉시트 이슈 불구 경제지표 호전으로 보합권 등락을 보였다. 역외 위안화를 비롯한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약화 시키자 하락했다. 더불어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슈에 주목하며 관망세가 짙은 점도 일부 요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흐름이다. 특히 최근 상승에 따라 금리 하락 요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점도 특징이었다.

금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및 브렉시트 이슈 우려로 1.4%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중국 수출 개선 및 달러 강세 여파로 혼조세로 마감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33%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5.76	-1.08	+0.93	Dollar Index	90.844	+0.16	-1.12
브렌트유	48.79	-0.93	+1.90	EUR/USD	1.2113	-0.07	+1.56
금	1,866.00	+1.41	+4.78	USD/JPY	104.03	-0.13	-0.27
은	24.794	+2.23	+9.74	GBP/USD	1.3381	-0.45	+0.44
알루미늄	2,017.00	-1.32	-1.37	USD/CHF	0.8908	-0.16	-1.99
전기동	7,710.00	-0.65	+1.72	AUD/USD	0.7424	-0.01	+1.09
아연	2,786.50	+1.07	-0.14	USD/CAD	1.2798	+0.11	-1.56
옥수수	424.00	+0.83	-0.47	USD/BRL	5.1075	-0.43	-4.68
밀	577.50	+0.35	-1.28	USD/CNH	6.5201	+0.04	-0.97
대두	1,158.50	-0.39	-0.86	USD/KRW	1082.10	0.00	-2.21
커피	119.10	+1.32	-3.41	USD/KRW NDF1M	1084.70	+0.01	-2.2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929	-3.65	+9.05	스페인	0.050	-2.90	-2.90
한국	1.642	-2.20	-2.00	포르투갈	0.014	-2.40	-1.70
일본	0.023	-0.10	-0.90	그리스	0.627	0.00	-0.60
독일	-0.582	-3.50	-1.10	이탈리아	0.608	-1.50	-1.7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